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활용 미술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 방안*

-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

이선혜**·김선아***

요약

세계화와 정보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세계 공통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와 능력을 필요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세계시민의식의 형성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실제적인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측면에서 공감능력에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공감능력의 향상을 통해 타인의 이해 및 주변의 현상이나 환경에까지 범위를 넓혀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교육에 대한 실천적 교육방안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에서 공감능력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둘째,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활용 미술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수업 모형 및 활동 내용을 사교기능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은 공감의 경험으로 세계시민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교사에게는 실천적 이해 능력의 변화와 모델링 제공자와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이 공감능력의 향상을 통해 자기의 생활주변에서의 삶과 연계하여 세계시민의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공감능력 향상을 통한 그림책 활용 미술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공감능력, 세계시민교육, 그림책, 그림책활용 미술교육, 초등학교 1학년

* 이 논문은 '이선혜(2021).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한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성신초등학교 교사, 본 학회 회원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교수, 본 학회 회원

I. 서론

현대 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 서로 다른 구성원들간의 이해와 존중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인과의 공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즉,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김경은, 이나라, 2012; 월드비전, 2015; 허영식, 2016). 또한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설명한다(김진희, 2015; 박환보, 조혜승, 2016; 유연옥, 박인숙, 2014; 이현민 외, 2016; 이해영 외, 2017; 정지현 외, 2015; 조대훈, 조아라, 2013). 이러한 학자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개념들에서는 실천영역으로서의 공감능력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타인과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 및 공감능력의 함양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각 지역 및 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공감능력의 향상을 위해 타인의 이해뿐만 아니라 주변의 현상이나 환경에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그림책을 활용 미술활동 중심의 미술교육에 대한 실천적 교육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공감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과교육 측면에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과는 미술이라 할 수 있다(박남정, 2016). 김정희(2020)에 따르면 미술은 감각적 경험, 즉 주목, 반응, 파악, 감정과 정서의 포착, 판단하는 활동으로 자신의 이해와 세상의 변화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미술의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 타인의 감정 및 생각의 인지와 더불어 타문화와의 이해 및 소통능력의 향상으로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향상하는 데 미술교육은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이 시기의 아동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속의 자아에 대해 생각하고, 사회 속에서 타자와 관계 맺는 방법을 습득하며, 더 나아가 공동체 규범을 익힌다(김혜원, 정래필, 2019). 따라서 아동들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타인의 관점에 대해서도 생각하도록 해야 하며, 타인의 관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의식

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 이러한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미술교육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의 저학년 아동에게 타인과의 공감능력을 기르고, 세계시민의 역할을 도울 수 있는 매개체 중 하나인 그림책은 효과적인 미술교육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그림책의 시각적 이미지와 등장인물을 통해 정서적인 공감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에서 공감능력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둘째,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활용 미술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방안에 대해 그림책 활용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의 수업 모형 및 활동 내용을 사고기능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공감능력의 향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방안으로 프로그램의 설계와 그림책 활용 미술교육의 방향 및 시사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1)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의식의 개념

세계시민의 필수 요소로서 세계시민성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사고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인 참여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세계시민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세계시민성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요청되는 것(이정우 외, 2015)으로 국가와 국가, 다양한 문화 주제 간의 상호의존성을 존중하고 정체성을 필요로한다. 세계시민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비판적인 사고와 아이디어를 전달할 줄 알며 유연한 사고로 창조적이어야 한다(성명경, 2018). 세계시민은 인류의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보편적인 인류애를 통해 다양성의 존중 및 비판적 사고로 자신 및 타인, 환경 등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이라 할 수 있다(UNESCO, 2014). 김형숙(2018)은 지구적인 도전 과제에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이해하고, 연대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시민이라 정의한다. 보편적인 인류애와 비판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지구의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모색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민이 세계시민이라 할 수 있다(이성희, 2015). 이처럼 세계시민의 개념은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의 세계시민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삶이 바탕이 되어 타인과의 협업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세계시민의식은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중 하나이다. 즉 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의식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시민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자기를 둘러싼 세계라는 관계망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곧 세계시민의식이라 할 수 있다(김진희, 차승한, 2016). 세계시민의식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한다. 또한,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의식과 세계지향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세계화 시대에서 그동안의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적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인간의 육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식을 토대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김다원, 2016).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보편적인 인류애를 바탕으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상호 인정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적 열망이나 상상에 기반한다(Rizvi, 2009). 성열관(2010)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한 국가의 정체성을 생각하여,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세계시민교육은 명확한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으로 다루어지지 않지만,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의 보편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논의가 주로 되어왔다(이윤주, 2016). 즉, 세계시민교육은 전 세계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타 문화와 역사, 인종, 습관 등의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된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자신 및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다수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즉,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성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단체와 학계에서 연구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은 <표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1〉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개념

저자	개념
김경은, 이나라 (2012, p.2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으로서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주는 교육 • 세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공감적 시각은 매우 필요함
월드비전 (2015, p.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인권, 환경, 평화 등의 세계적인 이슈들에 대해 배움 •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높이고 범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할과 책임 의식 등을 갖도록 돕는 교육
허영식 (2016, p.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자의 눈과 마음을 통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취득 또는 조망하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조대훈, 조아라 (2013, pp.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학습자가 변혁적이고, 과정과 문제 해결을 중시함. • 참여와 실천을 지향하고, 시민성 실천을 통해 학습하는 평생교육적 측면에서의 다면적인 교육
박환보, 조혜승 (2016, p.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나은 세상으로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 및 이슈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 • 지식, 가치 및 태도, 기술의 참여 등을 강조하는 종합적인 교육
이혜영 외 (2017, p.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자각 •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표 1〉과 같이 세계시민교육의 개념들은 참여와 실천을 위한 공감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공감능력을 가진 세계시민성의 함양은 세계화 시대에서 꼭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에서는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마음을 통해 전 지구적인 시각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인지해야 한다. 또한 보편성과 가치를 추구하고 존중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선 인류가 지닌 세계 공동의 문제들에 대하여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이선혜, 김선아, 2019). 세계시민교육은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시민으로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타인과의 협동으로 문제를 조망하여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세상의 지속을 위해 공동체 의식 및 보편적 가치의 추구로서의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보편적인 인류애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전 인류가 지닌 세계 공동의 다양한 문제들에 협력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공감과 실천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앞으로 다가올 세계 공동의 문제들에 협업하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실천의 학습영역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미술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세계시민은 지구촌이라는 큰 공동체에 상호의존하고 협력하는 다중적인 정체성을 지닌 시민으로 확장되어야 한다(Banks, 2008). 그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상호인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미술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도 그 의미를 같이한다. 이는 미술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도 그 의미를 같이한다. 미술은 타 교과에 비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시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며 타인과의 소통 및 공감 능력을 향상하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교과라 할 수 있다.

미술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는 경험을 토대로 세계시민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정서적인 영역 안에서 문화적인 인식, 편견 극복, 소통 및 공감능력, 차별 감소, 평등을 제공하는 교과로서 타 교과에서 할 수 없는 미술만의 특성에 기초한 교육적인 효과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이선훈, 김선아, 2019). 이는 참여적인 미술교육으로서 학습자 중심에서 세계적인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자 스스로 미술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술은 사회 안에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느낌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교과가 될 수 있다. 또한 미술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을 하는 과정 안에서 미술교과 역량의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적 감수성, 미술 문화 이해능력,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술교육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미술은 인간의 감정, 감성 등의 정서적인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형숙, 2018). 미술교육은 다양한 대상 및 현상 등에 대하여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세계시민교육의 요소 중에서 가치와 태도의 정의적인 영역에서 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적인 인식과 함께 유연한 자세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술교육은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 문화에 대한 차이를 발견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공동체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이선훈, 김선아, 2019). 이러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는 차이를 발견하고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이해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술교육은 자발적인 참여와 자기 성찰을 통하여 이러한 세계시민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데 유용한 교과가 될 수 있다. 미술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과(박남정, 2016)로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공감 및 존중을 할 줄 알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술교육은 교과교육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으로 연계되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NESCO(2014)는 전통적이지만 효과적인 세계시민교육의 접근법 중 하나로 자기표현, 타 문화의 이해, 공동의 소속감 등을 느끼게 하는 예술을 들어 설명하였다. 이는 미술교육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타자와의 소통 및 공감능력을 향상하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영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공감능력과 미술교육

1) 공감능력의 개념과 요소

공감의 개념은 인간 내면의 욕구, 신념, 지각이나 정서,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타인의 감정과 정신적 상태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와 관련해 탐구했던 근대 심리학의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의 정립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다(최주희, 2019). 공감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의 경험과 생각처럼 느끼는 것이다(김광수, 김해연, 2009). 공감은 한 개인의 정서와 타인과의 정서적 소통으로 한 개인이 타인의 정서를 체험할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설명된다(나선희, 2014). 최근 공감은 사람들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교육의 영역에서 또한 공감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다(박성희, 2004). 또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느낌과 생각, 감정 등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공감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최현석, 2011). 이러한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타인에 대한 인지과 감정 및 정서들을 자신의 감정과 정서로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감은 타인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며 인지하는 ‘인지적 측면’과 타인의 상황을 동일한 방식으로 느끼는 ‘정서적 측면’, 타인의 현재 감정의 이해를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으로 의사소통하는 ‘의사소통적 측면’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제시된 공감에 대한 개념은 <표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2〉 공감의 개념

강조한 측면	학자	개념
인지적 측면	Mead(1934)	공감은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볼 수 있는 능력
	Feshbach(1975)	상대방에게서 발견되는 감정을 인지해 내는 능력
정서적 측면	Thomas(1992)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
	Batson(1995)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목격한 결과로서 경험하는 염려, 온정 등의 타인-지향적인 느낌
의사소통적 측면	Truax & Carkhuff(1967)	공감이란 내담자의 현재 감정에 대한 민감성과 내담자의 현재 느낌에 맞추어진 이해를 의사소통하는 언어적 능력

출처: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신경일, 1994, pp. 5-8)

이처럼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로 분리하여 정의할 수 있다. 공감은 타인에 대한 지각 및 이해로 그들의 감정이나 정서 등을 나의 감정과 정서처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의 구성 요소는 서로 독자적으로 또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용하여 공감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요소와 타인의 감정을 느껴보는 정서적인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더 나아가 이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의 확장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공감은 복합적 차원의 과정으로 타인의 느낌과 경험을 체험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과정과 그때의 정서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정서적 과정을 거친 후 이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과정이다(이선영, 2019). 앞으로의 공감 개념은 단일 차원에서 개념화하고 측정될 것이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표현적 차원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측정되어야 한다(허순향, 남승규, 2019). 공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타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 문화 등의 다양한 차이 및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입장을 공유하는 능력으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타인의 관점에서 소통하여 공감됨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공감에 대해 학자마다 공감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와 어떤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두는지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앞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관점과 다차원적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네 가지 측면의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감의 구성 요소는 <표 3>과 같이 연구자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 3〉 공감의 구성 요소

요소	분류	내용
인지적 요소	관점수용	•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어떤 감정인지 분별하여 알아보는 것
	역할수용	•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이 처한 상황이나 생각, 감정 등을 이해하는 것 • 사회적 공감을 획득하는 것
정서적 요소	공감적 각성	• 타인의 상황을 동일한 방식의 정서로 경험하는 정서 반응
	공감적 관심	•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타인의 경험에 대해 불쾌감과 불안감을 경험하는 정서 반응
의사소통적 요소		•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표현하고 소통 • 사람들 간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개념
복합적 차원의 요소		• 공감이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 차원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감의 대상을 자신 및 타인을 넘어 주변의 현상과 환경에까지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포함하여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독자적으로 또는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용하여 공감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2) 미술교육과 공감능력의 관계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 연계, 사회적 참여, 협력, 공감 등 미술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미술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력으로 지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이모영, 2013). 따라서 미술교육의 사회적인 역할로 다양한 현상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여 공감할 줄 알며, 새롭게 변형하고 구성하여 이해하는 비판적 사고능력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시각적 사고능력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서 미술교육이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미술교육에 관한 학술적, 실천적 탐구는 지속해서 연구되어야 한다.

미술은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성찰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다룰 수 있는 교과로서,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의사소통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이선혜, 김선아, 2019). 교육부(2015)에서는 미술교육에 대해 바른 인성을 기르는 핵심 교과로, 학습자는 미술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시각적 매개의 소통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술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는 협력의 능력으로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을 교과 역량으로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이처럼 미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교과로서 공감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박나영과 김효정(2019)은 공감이 원활한 소통의 기능을 얻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타인을 존경하는 태도를 언급하였다. 이는 미술교과에서 추구하는 목표 및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의 향상이 교육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미술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미술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과 공감능력의 관계는 앞서 언급한 공감의 구성 요소를 토대로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복합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미술의 시각적 사고는 인지적인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술의 시각적 사고는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의 발달과 타인 및 타문화의 이해, 소통하는 능력의 향상까지 있어서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이모영, 2013). 공완옥 외(2018) 또한 시각적 사고에 대해 다양성과 개방적 사고를 촉진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인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소통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모영(2013)은 공감능력 개발을 위한 미술교육의 시각적 사고 기능을 지각의 민감성 증진, 체계화된 인지 기능 강화와 행위 유발성 증가, 대상의 개별적 특수성을 지각하고, 사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상이하게 인식하도록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비언어적인 미술활동을 통해 공감능력의 향상을 주는데 미술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미술의 감정적 사고는 정서적인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술은 긍정적 정서형성에 도움을 주는데, 공감이라는 정서적 반응은 상대에 대한 긍정적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심은 긍정적 감정을 낳고, 감정의 공명을 돕기도 한다(박경재, 2018). 즉 미술의 시지각적 활동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식화된 감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정서적 반응으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미술의 행동적인 사고는 의사소통적 요소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 행동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몸의 반응을 느끼고, 그것을 사고하는 것으로 설명된다(김황기, 2013). Weber(2008)는 머릿속의 지식보다 몸을 매개로 한 지각적 수준에서 처리되는 인지에 공감능력은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즉 미술교육은 공감에 대해 사고하며 그에 따른 행동적 반응을 느끼도록 하고, 느끼면서 공감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 행위를 유발할 것이다.

넷째, 미술의 복합적 사고는 복합적 측면에서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 공감은 단일 차원에서가 아닌 복합적 차원의 개념이다(Borke, 1971). 공감은 모든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복합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미술교육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들을 모두 아우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이모영, 2013). 즉 미술교육은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 시각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인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타인과 타 문화의 이해 및 소통 능력의 향상으로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시각 이미지를 통해 소통하는 과정 안에서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인성 또한 함양할 수 있다(이은지, 류재만, 2017).

이와 같이 미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교과로서 공감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미술교육은 시각적 매개의 소통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데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그림책 활용 미술교육

1) 그림책의 개념과 요소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언어 텍스트와 시각 텍스트, 그리고 상호 간의 보완 작용을 통하여 의미가 전달되는 독특한 장르이다(민경록, 2017). 그림책(picture book)이란 글과 그림이 함께 제시되며 적어도 그림이 펼친 면에 한 개씩 실려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도서를 말한다. 그림 이야기책, 이야기책, 이야기 그림책, 그림 동화책 등의 용어로 글과 그림이 함께 실린 어린이용 도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현은자, 김세희, 2005). 그림책은 글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만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닌 글과 그림이 함께 전달하는 것이다.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그림책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큰 효과를 내며(이차숙, 2012) 그림책에는 생각할 거리가 많고, 그림책을 통해 독자는 상상하며 추리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글과 시각 이미지가 상호작용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많은 의미를 창조하는 고유한 예술 장르가 될 수 있다.

박주연(2002)은 인류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청각적 표현(언어)’과 ‘시각적 표현(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언어는 일정 지역과 언어를 습득한 사람만이 가능하지만 그림은 상황이나 사물의 시각적 형상을 중심으로 행해지므로 보는 것이 주가 되어 언어의 이해 없이도 그림을 통해 의미를 수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동시에 사용되어 이야기가 진행된다. 원종찬 외(2019)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논리보다는 직관력의 발달로 인해 대상의 특징이나 느낌을 잘 찾고 언어적 상상력 또한 풍부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그림, 몸짓, 언어로 잘 표현하며, 글보다는 말하고 듣는 활동을 좋아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아동들은 그림책을 접하면서 사회적, 인성적, 지적, 문학적, 심미적으로 발달한다(이기영, 2006). 그림책은 다양한 체험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동에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배경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에게 상상력을 더해준다(김혜옥, 2009). 또한 그림책은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 및 형태적 특징으로 그림책을 읽는 아동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작용한다(현은자 외, 2019). 그림책은 아동들이 자신의 시선에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시각 이미지의 사용을 통해 정서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과 교육으로서의 미술을 배우기 전의 초등학교 저학년의 단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림책은 글과 시각 이미지가 서로 함께 적용되고, 상호작용하여 많은 의미를 창조하는 예술의 장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림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성 요소로 미술적 요소인 그림과 문학적 요소인 글로 분류하여 제시할 수 있다(박순선, 2017). 미술적 요소는 색, 선, 모양, 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문학적 요소는 주제, 등장인물, 구성, 배경, 언어표현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그림책의 표현 요소 중 미술적 요소는 시각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시각 문식성(visual literacy)’을 신장시키는 일과 연결된다. 오늘날은 많은 정보와 많은 시각 이미지가 쏟아져 나오고, 이러한 시각 이미지들을 읽지 않고 살아가기란 매우 어려운 시대이다. 시각적 문식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은 그림책의 그림 읽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이유나, 2015).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배치와 균형에 따라 다양한 스토리텔링도 가능해진다. 이에 그림과 글의 조화로운 표현을 위해서는 색, 선, 모양 등의 조형요소와 원리의 등의 미술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림책의 구성 요소가 갖는 또 다른 특성은 그림책을 읽는 아동들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그들과 공감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김재복, 1983). 아동들은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나와 다른 관점에서 각각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의 생각이나 의도, 감정 등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림책의 등장인물은 독자와의 의미 있는 과정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때 아동들은 등장인물을 통한 공감 반응을 주체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장인물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시선에서 등장인물을 바라보며 인물에 대한 생각과 개성, 감정 등에 공감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타인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어 공감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2) 그림책의 등장인물과 공감

등장인물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아동들은 그림책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공감하며 의미 있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아동은 그림책의 등장인물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넓고 풍부하게 경험하게 되고, 등장인물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와 갈등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정서적인 공감의 기회를 얻게 된다(나선희, 2014).

등장인물은 항상 이야기의 중심에 있으며, 독자는 인물을 통해 볼 수 있는 인간 본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흥미로 인해 이야기를 읽게 된다.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생명력 여부와 현실성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김소양, 외, 2003). 생명력의 여부와 관련하여 동물이나 사람과 같이 본래부터 생명력이 있는 경우와 무생물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인화를 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현실성의 여부는 동물이나 사람과 같이 존재 가능한 현실적 등장인물과 존재할 수 없는 대상으로 현실을 벗어난 등장인물로 구분된다. 아동들은 자신과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세계에 몰입하고, 간접 체험을 통해 등장인물의 감정에 더욱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은 이야기 전반에 걸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신현옥, 1996). 아동은 등장인물과의 내적 상호작용을 통해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며 공감하게 된다. 따라서 이야기 속에 몰입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등장인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책 안의 등장인물은 어떤 맥락 속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인물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절차를 경험한다(송영숙, 2017). 이와 같은 맥락으로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등장인물에 감정이입이 되어 공감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등장인물과의 거리를 좁히고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다.

둘째,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여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공감하게 된다. 이는 아동이 등장인물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 가운데 등장인물과 유사한 경험을 환기하여 자신이 읽은 텍스트와 시각 이미지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통해 등장인물에 공감한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이라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해 등장인물이 겪는 슬픔, 고통 등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

아동들은 간접적으로나마 타인의 입장을 경험해보고 의도적으로 사고하고 느낄 수 있도록 자극을 주어야 한다(신현옥, 1996). 아동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공감을 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을 통해 간접적인 활동으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교육의 가치

그림책은 아동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신의 삶에 적용해볼 수 있다(오상원, 2012). 이는 타인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며 타인에 대한 공감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다.

현은자 외(2019)는 그림책의 가치를 심미적인 경험, 공감, 유대감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심미적인 경험’은 그림책에서 글은 성인이 읽어준다는 전제로 리듬감과 운율, 적절한 어휘와 문장 수준, 아름다운 문체로 써야 한다. 그림책의 그림은 글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글보다 더 강력한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선, 색, 형태, 명암, 질감, 레이아웃 등의 그림의 요소가 이야기의 내용과 분위기를 전달한다.

둘째, ‘공감’은 그림책의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과 형태적 특징이 그림책을 읽은 아동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유대감’은 책을 읽은 아동들이 책의 인물과 유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다양한 주제의 책이나 주제를 다루는 여러 책을 읽으면서 각각의 작품이 가지는 시점 및 세계관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김은영(2001) 또한 그림책은 아동에게 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언어발달과 상상력, 경험의 확장과 사고력 및 창의력까지 길러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통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설명하였다(김은영, 2001). 그림책은 아동들이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하며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으며 심미감의 발달 및 경험을 통한 즐거움과 재미, 상상력과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오상원, 2012). 따라서 그림책은 아동의 지성, 감성, 의지 등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우며,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타인과의 공감 및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바른 가치관 정립을 돕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림책은 아동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지어 상상력을 펼쳐가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문학적 경험의 제공은 흥미로운 시각적 경험을 가져다준다. 타인에 대한 이해로 아동의 인지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등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송민정(2002)은 그림책의 미술 교육적 가치를 시지각의 발달, 미적 안목의 향상, 상상력과 창의력의 개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시지각의 발달이다. 시각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아동들에게 가장 쉽고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중의 하나가 그림책이 될 수 있다. 그림책은 시각적인 요소로 아동의 흥미를 끌고 감각적 색채와 형태로 다양한 시각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폭넓은 미술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둘째, 미적 안목이 길러진다. 정보화 사회에서 많은 문화 현상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문화의 선택 및 향유할 수 있는 미적 안목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책은 감상 자료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미적 안목의 육성을 위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상상력과 창의성의 개발이다. 상상력은 경험의 자극을 불러일으킨다. 창의적인 사고는 새롭고 가치 있는 생각의 창출을 돕는다(김영채, 2007). 그림책은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성의 산물로서 미술교육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구로서 적합하다. 상상력과 창의력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아동들은 그림책을 통해 넓은 마음으로 넓은 시야를 갖게 되어 세계시민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송영숙, 2017).

위와 같이 그림책의 미술 교육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이 지니는 미술교육적 가치는 아동들에게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그림책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으로 다양한 현상이나 마음 속에서 재생되어 형성해 나가는 데 좋은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지닌다. 또한 그림책에서 그림 안의 조형 요소와 원리들은 복합적인 작용으로 아동들에게 심미적인 감동과 미적 감각을 길러준다. 그림책은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책은 아동이 공감을 통해 세계시민의 역할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방안

1.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그림책 활용 교육

1)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그림책 활용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1학년은 미술이 독립된 교과로서 교수·학습이 이루어

어지지 않는다. 미술 영역은 통합교과의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다. 즐거운 생활의 교과 역량은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이다(교육부, 2017). 즐거운 생활의 역량은 타 교과와의 통합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놀이 중심의 학습으로 길러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즐거운 생활 역량은 다양한 문화와 타인에 대한 소통 등을 통해 공감능력을 향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미술교육의 역량과도 연계될 수 있다(이선혜, 김선아, 2019).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도 미술 교과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이다(교육부, 2015). 미술 교과의 목표는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교육부, 2015). 이에 미술은 목표 차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를 실현하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이선혜, 김선아, 2019).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과로서 미술교육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술의 기초 교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술은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적인 역할을 한다.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성찰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 존중 등을 다룰 수 있는 교과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선혜, 김선아, 2019). 이러한 미술교과의 특성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있는 공감과도 연결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주제 중심의 통합교과에서 미술학습뿐만이 아닌 미술의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교수·학습을 통해 미술교과로 확장하여 준비해야 하는 시기여야 한다. 미술은 미술 수업을 통하여 창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및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1학년 시기에 그림책은 미술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미술교과로의 확장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매우 적합한 매체가 될 수 있다. 그림책 활용 미술교육은 학생들에게 공감능력을 향상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 연구 대상의 발달적 특징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1학년의 특성 중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친숙한 것에서 출발해서 모르는 것, 낯선 것을 학습한다. 또한,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심리적인 것에서 논리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앞의 세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정광순, 2010). 이 시기는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소속감, 사랑을 필요로 하며 현상적, 지각적 경험에 의존하는 직관적 사고, 미분화된 자기중심적 사고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집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김재복, 1983). 이미경과 한경아(2020)는 또래집단에서 또래와 함께 미술 활동을 하며 이런 활동을 통해 반응하고 공감을 표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공통점과 차이의 발견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논리보다는 직관력의 발달로 인해 대상의 특징이나 느낌을 잘 찾고 언어적 상상력 또한 풍부하다(원종찬 외, 2019).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 몸짓, 언어로 잘 표현하며, 글보다는 말하고 듣는 활동을 좋아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이선혜, 김선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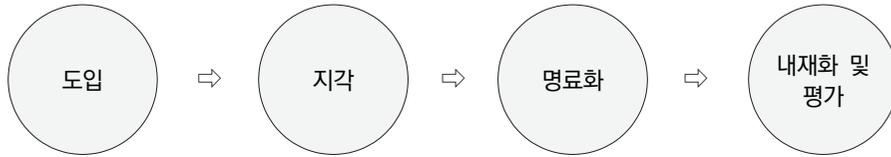
이와 같이 초등학교 1학년의 특성을 통해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를 살면서 서로 협력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공감과 실천을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관점을 지닐 수 있다. 이에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활용 미술교육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그림책의 등장인물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시선에서 등장인물을 바라보며 인물에 대한 생각과 개성, 감정 등에 공감하도록 한다.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타인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어 공감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실천방안

1) 프로그램의 절차 및 활동 내용

학습자들은 타인과의 공감 및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 중 하나인 그림책의 활용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활용 미술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림책은 등장인물과의 연대감을 형성하며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공감하게 되면서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현은자 외, 2019).

변윤희(2004)는 그림책을 활용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의 단계를 지각→제작→반성으로 나누어 학습자들은 타인과의 공감 및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현은자 외(2019)는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의 수업 절차를 도입→그림책 읽기→전개→마무리의 네 단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변윤희(2004)와 현은자 외(2019)의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의 수업 절차를 재구성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사고 기능을 중심으로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의 수업 절차

도입에서는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경험이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등을 점검하게 된다. 그림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으로 그림책의 표지를 탐색해보고 이야기를 추측해보는 등의 활동으로 동기유발을 돕도록 한다.

지각 단계에서는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을 보며 줄거리를 회상하거나 기억에 남는 장면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이는 그림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용 이해를 위한 발문을 하게 된다.

명료화 단계에서는 주인공에게 관심 갖기→주인공의 마음 공감하기→감정 표현하기→감정 소통하기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등장인물에 감정이입되어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계획되어 표현 활동을 하게 된다.

내재화 및 평가 단계에서는 활동 후 마음 상태를 표상하는 단계로서 활동을 통한 내재화가 이루어진다. 그림책의 내용을 토대로 세계시민으로서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 태도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평가를 해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에서부터 내재화 및 평가 단계의 과정은 서로 순환하는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며 반복되는 과정을 가진다. 이를 통해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활용 미술교육의 효과는 극대화가 될 것이다.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활용 미술교육은 앞서 언급한 공감의 구성 요소인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관점과 다차원적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한 네 가지 측면의 요소를 절충하여 활동 단계, 내용, 교수전략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내용은 미술교육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10년 이상의 초등학교 1학년 교육경력을 가진 세 분의 초등 미술교육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검토받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수업 모형 및 활동 내용을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수업의 수업 모형 및 활동 내용은 <표 4>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4〉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활용 미술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 활동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활용 미술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 활동

	수업 모형	활동 내용	교수 전략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책 선정 교수·학습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구성 요소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복합적인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공감능력 증진 공감과 실천의 학습 영역으로서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개발
	↓	↓	↓
도입	동기유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책의 표지 탐색하기 표지를 보고 떠오르는 경험 이야기 나누기 그림책 속 이야기 추측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기유발을 위한 학생의 경험 나누기 그림책에 대한 흥미 유발하기
지각	그림책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책 읽기 그림책 보며 즐거워 회상하기 기억에 남는 장면 이야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책 탐색의 기회 제공하기 내용 이해를 위한 발문하기
명료화	주인공에게 관심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공의 상황에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기 주인공에게 관심 갖기 주인공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공의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주인공의 마음 공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공의 감정 인지하기 주인공의 입장에서 감정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공의 감정을 관점과 역할 수용을 하도록 유도하기 주인공의 감정을 공감하며 바라보기
	감정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공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고 표현하기(언어적, 비언어적) 주인공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경험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공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학생들의 표현을 존중하고 수용하기
	감정 소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기를 통해 주인공과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공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까지 포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내재화 및 평가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감상 나누기 자신의 작품을 발표 또는 감상하기 정리 및 마무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감중심 세계시민교육 활동에 대한 태도 격려하기 정리하기

2) 최종 프로그램 제안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을 활용 미술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이를 중심으로 시민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절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통한 최종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활용 미술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관점에서의 세계시민교육과 미술 교육적 활용 방안으로 확장하여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세계시민의식을 증진해주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양한 공감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존중의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입장 바꿔보기 활동을 통해 등장인물과의 정서적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셋째, 다양한 시각화 활동을 통해 공감능력을 증진한다.

(2)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세계시민의식 요소 중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은 타 문화에 대한 관심 및 흥미, 반편견 의식,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및 존중, 타 문화 수용, 문화 정체성, 문화상대주의적 의식으로 구성된다. 또한 공감능력 요소 중 정서적 요소인 공감적 관심과 공감적 각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의 생활 주변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과 주제로 이루어져 공감능력을 향상하고 세계시민의식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역할극, 토론, 시청각 자료 이용 학습, 문제해결학습, 놀이, 미술활동 등의 공감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자신의 생활 주변의 상황에서 시작하여 점차 의미와 깊이를 확장하여 다 큰 공동체나 사회에서의 상황으로 퍼져나가도록 수업을 전개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보이는 학생의 반응을 알 수 있는 분석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성찰일지, 학생 면담, 관찰일지, 소감문, 설문지, 수업 영상 전사 자료 등의 다양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즉 모두의 관점을 담아 평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연구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학생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들은 수업 후 소감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전문가 선생님들과 영상 전사 자료를 분석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인지 평가받도록 한다.

(3) 프로그램의 유의점

학생들이 정서적인 공감능력을 복합적이면서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숙지하고 유의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도록 한다.

첫째, 공감 대상과 상황을 친숙한 학생 주변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림책 안의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들을 통해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입장바뀌 생각해 보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정서적 경험을 통해 타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감정 알기와 표현 연습하기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에게 감정표현의 잦은 노출은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하다. 감정표현의 연습은 공감능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로써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서 반응 활동의 지속적인 연습하기이다. 학생들의 정서적 공감을 위해 공감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하기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 중 하나가 된다. 또한 질문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정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역할 취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의 구성 방법도 필요하다.

넷째, 시각화를 통한 내면화와 실천의지 다지기이다. 그림책의 그림이 주는 다양한 의미를 학생들이 충분히 탐색하여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타인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을 기르도록 한다. 시각적 표현활동으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시각이 일어나도록 실천의지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4) 프로그램의 수업 지도안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활용 미술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의 구성 체계화 활동 내용은 ‘1차 수업 계획 → 1차 수업 실행 → 수업 관찰 → 수업 반성 → 수정된 2차 수업 계획 → 2차 수업 실행 → 수업 관찰 → 수업 반성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1·2차시 수업은 타인과 타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지닐 수 있는 『사람놀이』 그림책을 활용한다. 그림책 속 등장인물인 동물들의 시점에서 불편한 세상을 확장해서 바라보며 ‘공감적 각성’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타인의 입장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최종 1·2차시 프로그램의 수업 지도안은 <표 5>에서 정리했다.

〈표 5〉 1·2차시 최종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명	동물의 눈으로 본 세상	차시	1·2차시 (80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문화를 타 문화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 • 등장인물에게 인터뷰와 등장인물이 되어 대답을 해보며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동물의 시점에서 그림으로 표현하며 불편한 세상을 확장해서 바라볼 수 있다. • 그림책 안의 배경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망해보고 타인의 입장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그림책	사람놀이		
세계시민의식 요소	타 문화에 대한 관심 및 흥미	공감능력 요소	공감적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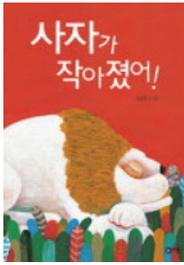
활동	교수 · 학습 내용	준비물 및 유의사항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알아보기 • 감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어휘를 살펴보고, 지금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얼굴 표정이나 행동으로 친구의 감정 알아맞히기 놀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방법과 어휘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돕기 • 감정표현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감정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의 표지 탐색하기 • 표지를 보고 어떤 내용일지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놀이』그림책 • 그림책을 읽기 전, 표지의 그림과 제목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내용을 추측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기
지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읽기 -책의 내용을 생각하며 동물들이 사람놀이를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책을 읽어 주며 내용 이해를 위한 발문을 유도하기
명료화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에게 관심 갖기 -책 속의 코끼리, 기린, 얼룩말 등 등장인물들의 동물들이 사는 곳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주인공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 공감하기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표현하기 -동물들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고 표현하기 (언어적, 비언어적표현) -등장인물에게 질문을 만들어서 인터뷰하기 -그림책 속 등장인물인 동물들의 가면이나 이름표 등을 만들어 착용하고 인터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표현을 존중해 주기 • 질문지 활동지 • 핫시팅 기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에게 직접 질문을 만들어 인터뷰를 하고 등장인물의 마음에서 답을 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소통하기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곳'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동물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곳'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곳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비교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화지, 채색 도구 • 생각과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을 하도록 자유로운 분위기 유도하기 • 표현활동을 통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내재화 및 평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하기 -그림을 친구들에게 발표하기 -나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기 -타 문화, 타인에 대한 관심과 흥미 지니기 • 정리 및 마무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비교해보며 타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	---	---

3·4차시에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해 볼 수 있는 『사자가 작아졌어!』 그림책을 활용한다. 등장인물을 통해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할 수 있다. 이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타인의 경험에 불쾌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 정서 반응인 ‘공감적 관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표 6>은 최종 3·4차시 프로그램의 수업 지도안이다.

〈표 6〉 3·4차시 최종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명	내가 만약 사자라면	차시	3·4차시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 등장인물에게 인터뷰와 등장인물이 되어 대답을 해보며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내가 만약 등장인물이라면 어떤 마음일지 등장인물의 얼굴에 감정을 담은 표정을 그려볼 수 있다. • 그림책 상황과 같은 실제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진다. 		
그림책	사자가 작아졌어!		
세계시민의식 요소	반편견의식,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및 존중	공감능력 요소	공감적 관심
활동	교수 · 학습 내용		준비물 및 유의사항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만약 몸이 커지거나 작아진다면? -몸이 커지거나 작아지고 싶을 때 생각해서 친구들에게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친구들의 입장 이해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의 표지 탐색하기 • 표지를 보고 어떤 내용일지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자가 작아졌어!』그림책 • 그림책을 읽기 전, 표지의 그림과 제목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내용을 추측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기
지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읽기 -그림책의 내용 이야기나누기 -기억에 남는 장면 이야기하기 -그림책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책을 읽어 주며 내용 이해를 위한 발문을 유도하기

명료화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에게 관심 갖기 -가젤은 왜 사자를 다시 물에 빠트리려 했는지 이야기 나누기 -사자는 가젤의 화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 나누기 -사자는 왜 가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의 마음이 되어 주인공의 상황을 이해하고 주인공에게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 공감하기 -가젤은 왜 화가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기 -사자가 자기를 먹으라고 했을 때, 가젤은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표현하기 -내가 가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등장인물에게 질문을 만들어서 인터뷰하기 -가젤의 마음에서, 사자의 마음에서 감정을 표현하며 인터뷰에 대답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지 활동지 • 핫시팅 기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에게 직접 질문을 만들어 인터뷰를 하고 등장인물의 마음에서 답을 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소통하기 -내가 만약 사자라면 어떤 마음일지 사자의 얼굴에 감정을 담은 표정을 그려보기 -작아지기 전, 작아졌을 때, 다시 커졌을 때의 모습을 나누어 그려보며 사자의 마음을 이해해보기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화지, 채색도구 • 사자의 마음을 생각하며 감정을 표정에 담아보기
내재화 및 평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하기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입장바뀐 생각하기를 통해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을 하고, 존중하는 자세 가지기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생각해 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다지기 • 정리 및 마무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보기

5·6차시에는 타 문화를 수용해 갈 수 있는 『이모의 결혼식』 그림책이 활용되었다. 그림책의 등장인물을 통해 타 문화를 수용해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정서적 공감’을 통해 문화 정체성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주인공이 타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심리 상태에 감정이입이 되어 공감할 수 있다. 최종 5·6차시 프로그램의 수업 지도안은 <표 7>로 제시될 수 있다.

〈표 7〉 5·6차시 최종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명	우리 이모부는 그리스 사람		차시	5·6차시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을 통해 주인공이 타 문화를 수용해 가는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 등장인물에게 인터뷰와 등장인물이 되어 대답을 해보며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등장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그리고 말 주머니에 적을 수 있다. • 등장인물의 정서 경험을 통해 문화정체성을 이해하고, 타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지닌다. 			
그림책	이모의 결혼식			
세계시민의식 요소	타 문화 수용, 문화정체성, 문화 상대주의적 의식	공감능력 요소	공감적 관심	
활동	교수 · 학습 내용		준비물 및 유의사항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 대해 스무고개 놀이하기 -친구들의 질문에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힌트 주기 -스무고개 놀이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특징과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 그림책의 배경인 그리스의 크레타섬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좋아하는 나라를 스무고개 놀이를 통해 소개하고, 다양한 국가의 다양성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의 표지 탐색하기 • 표지를 보고 어떤 내용일지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모의 결혼식』 그림책 • 그림책을 읽기 전, 표지의 그림과 제목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내용을 추측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기 	
지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읽기 -그림책의 내용 이야기나누기 -기억에 남는 장면 이야기하기 -그림책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책을 읽어주며 내용 이해를 위한 발문 유도하기 	
명료화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에게 관심 갖기 -여자아이는 왜 이모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기 -그리스에 가기까지 주인공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이모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과 결혼식의 모습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의 상황을 이해하고 주인공에게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기 • 그림책의 그림과 내용을 통해 타문화를 수용하고 문화상대주의적 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그림책에서 본 것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유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 공감하기 -주인공은 왜 이모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들러리가 된 주인공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생각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격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표현하기 -내가 주인공이라면 처음 만난 이모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보기 -내가 이모부라면 주인공과 친해지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기 -내가 다른 등장인물이라면? 이야기 나누기 -등장인물에게 질문을 만들어서 인터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의 정서 경험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기 • 질문지 활동지 • 핫시팅 기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에게 직접 질문을 만들어 인터뷰를 하고 등장인물의 마음에서 답을 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소통하기 -등장인물들이 되어 다른 인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생각하기 -등장인물의 마음이 담긴 얼굴 표정을 그리고 등장인물이 되어 말주머니에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화지, 색지 • 등장인물의 마음을 읽고, 공감적 각성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기
<p>내재화 및 평가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하기 -작품을 들고 등장인물이 되어 다른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발표하기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타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 지니기 • 정리 및 마무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3)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미

프로그램 실행 후 학생과 교사에게 교육적 의미를 지닌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입장바꿔보기를 통한 공감의 경험으로 그림책 속의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자신을 포함한 친숙한 주변의 일상에서부터의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등장인물의 입장과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어 등장인물이 처한 다양한 입장과 차이를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마음을 읽어가는 모습이였다. 또 다른 학생의 변화는 시각화를 통한 공감의 경험 측면에서의 변화이다. 그림책의 시각이미지는 다양한 시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런 시각이미지를 통한 활동으로 몰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등장인물이 처한 다양한 상황들에 느낀 흥미는 공감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변화가 나타났다.

교사 또한 실천적 공감의 이해 능력 부분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변화가 나타났다. 실천적 공감의 이해 능력의 변화 중 하나로 교사는 실천가와 협력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모델링 제공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또한 교사는 세계시민 교육을 위한 지식과 기술 등의 습득으로 교사 자신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교사에 의해 긍정적으로 학생들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IV. 결론

현대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빠른 변화로 세계 공통의 다양한 난제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필

요성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공감능력에 더욱 주목하였다. 따라서 공감의 대상을 ‘타인’을 넘어 주변의 현상이나 환경에까지 확장하여 세계시민으로서 공감능력 향상이 되도록 돕고자 하였다.

학교 교육에서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인류의 정신적, 물질적 유산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줄 수 있다(교육부, 2015). 미술교육은 다양한 사고를 통해 시각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인지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과 타 문화의 이해 및 소통능력의 향상으로 공감능력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미술은 교과교육으로서 공감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방안으로 그림책을 활용하여 미술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과 시각 이미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이상의 많은 의미를 학생들에게 가져다준다. 그림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지어 상상력을 펼쳐가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문학적 경험의 제공은 흥미로운 시각적 경험을 가져다주며 타인에 대한 이해로 아동의 인지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등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활용 미술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수업 절차 및 미술교육 활동의 내용을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내재화를 위해 사고 기능을 중심으로 제안한 수업의 절차는 도입 → 지각 → 명료화 → 내재화 및 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도입에서부터 내재화 및 평가 단계의 과정은 서로 순환하는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공감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이 과정들을 통해 학생과 교사에게는 공감의 변화가 일어났다. 학생에게는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과 시각화 활동을 통한 공감의 경험에서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교사에게는 실천적 공감의 이해 능력과 모델링 제공자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안된 프로그램은 새로운 관점에서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활용 미술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과 미술 교육의 실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미술교육의 방향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공감능력의 향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은 미술교육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미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타인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교과로서 공감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시각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인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타인과 타 문화의 이해 및 소통능력의 향상으로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림책은 교과교육으로서 미술을 배우기 전의 초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활용되기에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책은 아동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을 통해 정서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림책의 구성 요소는 그림책을 읽는 아동들이 등장인물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처한 상황 등을 공감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셋째, 그림책이 지니는 미술교육적 가치는 아동들에게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림책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으로 다양한 표상을 형성해 나가는 데 좋은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림책에서 그림 안의 조형 요소와 원리들은 복합적인 작용으로 아동들에게 심미적인 감동과 미적 감각을 길러주는 등 다양한 미술 교육적 가치를 통해 공감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고기능을 중심으로 제시된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의 수업 절차를 통해 미술교육의 효과는 극대화가 되고, 공감능력의 향상이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제시한 수업 절차와 미술활동의 내용은 미술활동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시선에서 그림책의 등장인물들과의 연대감을 형성하며 생각과 느낌을 공감하게 되면서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지하고,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감과 실천을 학습 영역으로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하며 다양한 방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연구로 확장되길 기대한다.

■ 논문접수 2021년 10월 25일 / 논문심사 2021년 11월 5일 / 게재승인 2021년 11월 15일

【참고문헌】

- 공완옥, 임혜원, 이미희, 박수정, 이주연(2018). 미술교육 관점에서 디자인 씽킹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술교육연구논총. 55. 217-246.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고시 2015-74호 [별책 1].
- 교육부(2017). 초등학교 지도서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 생활 1-1. 동아출판 (주).
- 김경은, 이나라(2012). 사회과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교과교육학연구. 16(1). 231-256.
- 김광수, 김해연(2009).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 연구. 22(4). 275-300.
- 김다원(2016). 세계시민교육에서 지리교육의 역할과 기여: 호주 초등 지리교육과정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4). 13-28.
- 김소양, 이경화, 채종옥(2003). 그림 이야기책을 통한 유아문학활동. 양서원.
- 김영채(2007). 교수-학습의 과정과 창의력 교육. 사고개발. 3(2). 1-35.
- 김은영(2001). 유아문학교육을 위한 대학 교재에 대한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 93-106.
- 김정희(2020). 미술교육에서 실천적 배움의 의미와 과정. 미술교육논총. 62. 63-85.
- 김재복(1983).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적용. 과학연구사.
- 김진희(2015). Post 2015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담론 동향과 쟁점 분석. 시민교육연구. 47(1). 59-88.
- 김진희, 차승한(2016). 세계시민의식과 도덕 교육의 이론적 관계 성립: 세계시민이론과 중학교 도덕 교육과정 분석. 한국교육. 43(3). 31-55.
- 김형숙(2018). 세계시민성 신장을 위한 역량 및 미술 교육과정. 미술교육논총. 32(3). 23-47.
- 김혜옥(2009). 그림책 활동이 유아의 언어 및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혜원, 정래필(2019). 문학을 활용한 시민교육의 가능성 연구: 이야기그림책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65. 23-49.
- 김황기(2013). 미술적 사고에 대한 탐구. 미술교육논총. 27(1). 49-70.
- 나선희(2014). 아동의 그림책 읽기에서의 공감의 양상과 의미. 인문과학. 54. 341-374.
- 민경록(2017). 그림책의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23-48.
- 박경재(2018). 미술적 사고를 활용한 미술활동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나영, 김효정(2019).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미술수업의 디자인사고 활용 사례연구 : 고등학교 1학년년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33(2). 147-176.
- 박남정(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으로 살펴본 미술교육의 미래교육 방향 탐색. 미술교육논총. 30(3). 121-144.
- 박성희(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학지사.
- 박순선(2017).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유아기 자녀 어머니들의 그림책 함께 읽기. 경남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주연(2002). 그림책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 : 전조작기(2-7세) 아동의 창의력 상상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환보, 조혜승(2016).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연구동향 분석. 교육학연구. 54(2). 197-227.
- 변윤희(2004).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비교집단의 수업 과정 비교. 한국 유아교육학회 연구보고서.
- 성명경(2018).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의 방향성 연구-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성열관(2010).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의 보편적 핵심 요소와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 37(2). 109-130.
- 송민정(2002). 그림책에 나타난 일러스트레이션이 어린이 미술 표현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영숙(2017). 그림 중심 그림책 읽기 교수모형 개발 및 효과. 가천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신경일(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硏究報. 29(1). 1-37.
- 신현옥(1996). 유아의 인지조망수용과 감정조망수용과의 관계. 培花論叢. 15. 195-210.
- 오상원(2012).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그림 표현력 및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원종찬, 박숙경, 김지은, 오세란, 김제곤, 최은경, 이충일, 강승숙, 탁동철, 박경희, 임선복, 신민경(2019). 교사를 위한 온작품 읽기: 초등학교 한 학기 한 권 읽기 안내서. 창비.
- 월드비전(2015).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성 연구보고서. 한국 월드비전.
- 유연옥, 박인숙(2014).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서의 세계시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4). 465-480
- 이기영(2006).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모영(2013). 공감능력 개발을 위한 미술교육의 역할: 시각적 사고를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27(3). 99-124.

- 이미경, 한경아(2020). 학교폭력 예방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공감 능력과 또래관계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조형교육*. 70. 217-244.
- 이선영(2019). 공감 중심 초등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서울교육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혜, 김선아(2019). 초등학교 통합 교육과정에 기초한 미술과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기초 연구. *조형교육*. 70. 81-98.
- 이성희(2015). 세계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은지, 류재만(2017). 역할놀이를 활용한 미술 감상 수업이 공감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미술교육연구논총*. 51. 201-230.
- 이유나(2015). 교사의 말문을 통한 그림책의 그림읽기 지도방안 탐색: Arnheim의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을 중심으로. *어린이미디어연구*. 14(3). 23-51.
- 이윤주(2016). 세계시민성 함양과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방안. *사회과학연구*. 27(1). 225-245.
- 이정우, 조지민, 박상복, 김현수, 이미미(2015). 한_아세안 세계시민교육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보고 CRE 2015-2.
- 이차숙(2012). 그림책 읽기의 의미 구성적 과정에 대한 이해. *한국영유아보육학*. 73. 55-80.
- 이현민, 권은재, 강인애(2016). 오브제로서의 미술과 음악 작품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조형교육학회 2016년 국제학술대회*. 167-171.
- 이혜영, 조혜승, 박수정(2017). 미국대학의 세계시민교육 사례 연구. *글로벌교육연구학회*. 9(1). 3-30.
- 정광순(2010). 초등교육과정 실행 수준에서 본 “통합”. *통합교육과정연구*. 4(1). 93-113.
- 정지현, 김영순, 장연연(2015).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 참여고등학생의 ‘세계시민 되기’의 의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5). 323-350.
- 조대훈, 조아라(2013).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글로벌 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방안 연구. 교육부.
- 최주희(2019). 공감 능력 함양을 위한 문학치료 수업방안 연구: 초등학교 도덕 교과 수업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현석(2011). 인간의 모든 감정 : 우리는 왜 슬프고 기쁘고 사랑하고 분노하는가. 서해문집.
- 허순향, 남승규(2019). 공감의 구성요소와 심리적 기제.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3). 939-947.
- 허영식(2016).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동향과 함의: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6(1). 167-196.

- 현은자, 김세희(2005). 그림책의 이해 1. 사계절.
- 현은자, 김현경, 박현경, 오정옥, 윤현민, 조은숙, 최혜정(2019).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학지사.
- Banks, J. A. (2008). 다문화교육 입문(모경환 외 역). 아카데미프레스 (원저 2008 출판)
- Batson, C. D. (1995). Immorality from empathy-induced altruism: When compassion and justice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6). 1042-1054.
- Borke. H.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2). 263-269.
- Feshbach, N. D. (1975). Empathy in childre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2). 25-30.
- Mead, G. H. (1934). *Mind, self &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zvi. F. (2009). Towards cosmopolitan learning. *DISCOURSE -QUEENSLAND-* 30(3). 253-268.
- Thomas E. M. (1992). *Truth and ethics in school reform*. Council for Educational.
- Truax, C., & Carkhuff,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raining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 UNESCO (2014). 글로벌시민교육 :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 한림출판사. (원저 2014 출판)
- Weber. S. (2008). Visual images in research. In J. G. Knowles & A. L. Cole (Eds.). *Handbook of the arts in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ons.

【Abstract】

A plan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entered Focusing on Art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to Improve Empathy - For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

Lee, Sun-Hye (Sungshin Elementary School)

Kim, Sun-ah (Hanyang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where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are accelerating, attitudes and abilities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common around the world are required from a community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the formation of global citizenship for this purpose must be discussed as a necessary education and practical measure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at can be achieved in the school field. In this study, attention was paid to empathy in terms of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acknowledging, respecting, and cooperating with others and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and culture. Therefore, by improving empathy ability, we tried to expand the scope to other people's understanding and surrounding phenomena and environment, and to explore practical education plans for art education using picture books for first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The detailed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does empathy mean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econd, how should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centered on art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to improve empathy be designed? To this end, I would like to propose class models and activities focusing on art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improve empathy skill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brought about a change in global citizenship through empathy experience, and teachers had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erms of changes in practical understanding and roles as modeling providers and global civic education experts. In terms of helping students play the role of global citizens in connection with their lives by improving empathy ability, it is meaningful that they sought practical us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entered on art activities by improving empathy ability is improved.

Key words: empathy ability,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icture book, art education using picture book, First grade elementary school